

#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나는 완주예술가이다. '최용선' 작가

## 자기소개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 최용선입니다.

## 작품세계

기호학적인 문제에서 도형적인 문제로 보면, 원과 네모라는 도형을 가지고 조형성 있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 원은 우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불멸한 그런 변하지 않는 원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불멸한 그 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자기만의 동그라미. 내가 찾는 동그라미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생각할 때 동전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바퀴라든지 일상생활에 많이 보이는 컵이라든지 접시라든지 많은 원이 있는데 무심코 우리는 그냥 "아. 이게 원이구나. 동그라미구나. 네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원에 대한 것을 집착하다 보니 그 원에 대한 안과 그 원 안에 있는 현실 세계와 원 밖에 있는 그 테두리, 경계. 이 경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품은 그 테두리. 원의 안에 있는 현실 세계와 저는 지금 원 안을 현실 세계로 보고 있거든요. 원 안에 있는 현실 세계와 원 밖에 있는 비현실 세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알루미늄을 네모난 조각을 만들어서 그 조각을 용접을 해서 그 네모가 또 어떻게 보면 원이 되고 그 원 속에서 추구하는 나만의 내면이라든지 아니면 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재료

조각가라면 물론 여러 재료를 뭐랄까 다룰 줄 알고 그것을 또 자기 작품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부 때 배웠던 석조라든지 철조라든지 목조라든지 이런 수업들이 어떻게 보면 전업작가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물성을 찾고 어떤 재료를 찾는지 그것이 굉장히 많은 숙제거든요.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의 물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맞는 재료를 찾는 거죠.

##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영향은 저희 엄혁용 교수님께서 알루미늄 작업을 초반기 때 작업을 많이 해서 가지고 알루미늄을 많이 권고하셨어요. 교수님께서 "한번 써 보라. 물성을 찾아서 네 나름대로의 작품하고 맞는 재료를 찾아보라." 해서 알루미늄을 처음 시도를 했는데 처음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알루미늄이라는 재료가 낯설었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루미늄이 많이 있지만은 그 알루미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료 찾기라든지 아니면 재료에 대한 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엔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알루미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 오히려 다른 스테인리스라든지 아니면 일반 철이라든지 이런 재료보다도 저에게는 알루미늄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재료로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 영감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물론하지만 항상 자기 전에 스케치북을 머리맡에 두거든요. 제일 많이 스케치하는 게 자기 전에 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하루를 회상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변독이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를 가만히 쳐다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영감을 얻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어떤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것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저는 스케치를 많이 해서 스케치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스케치를 매일 하시나요?) 매일은 아니

고 가끔가다 생각이 날 때 항상 조그마한 수첩이라든지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도 잠깐잠깐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다른 작품을 봤을 때 아. 또 저런 작품은 저렇게 있는 그 형상이 내 작품하고 맞을 수 있는 콘셉트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그때그때 스케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많이 얻죠.

#### 디자인과 재료

저는 디자인. 에스키스라고 하는데 먼저 스케치를 한 다음에 어떤 재료를 쓸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케치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작품에는 어떤 재료가 맞을지 안 맞을지를 결정을 하고 작업을 하는 편이죠. (디자인이 나왔는데 재료 특성상 디자인이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재료 선택을 다시 하죠. 재료로써 알루미늄이 안 맞으면 철이라든지 철을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라든지 그렇게 융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디자인을 먼저 하죠.

#### 아티스트

그런데 그 대답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좀 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저의 아들이 둘이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남자에 막내가 아빠는 작업을 왜 하나고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저도 작업을. 일단은 작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다든지 우리가 밥을 삼시 세끼 먹잖아요. 먹는 그 밥과 똑같은 거 같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안 하면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말할까? 항상 막내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생활의 욕구다. 어떻게 보면 내 생활에 작업을 안 하면 배가 고프 것처럼 그 배가 고프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죽는 날까지 힘닿는 데까지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 계획

제가 고향이 또 고산이고, 고산초, 중, 고등학교까지 고산에서 나왔고 그 고향에서 작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작품 전시를 하고 한다는 자체가 고향이라는 걸 떠나서 완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어머니 품 같은 곳이기도 하고 앞으로 완주에서 제 개인전을 한 번도 못했는데, 완주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완주에서 전시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

완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는 완주에서 활동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